

여수세계섬박람회 하루 13만명 최다 운집 ‘흥행몰이’

프라임콘서트 등 대규모 공연 인산인해
미디어파사드 실황중계 등 호응 극대화
해외관 교체 새단장 오늘 후반기 운영
섬게이트·잔디광장 등 경관조명도 보강

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여수 진 모지구 주행사장에 역대 최다 관람객이 몰리며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6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일 돌산 진모지구 일원에서 열린 세계섬박람회에 하루 13만2천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며 개막 이후 역대 1일 최다 방문객 기록을 갈아치웠다.

10월 첫 연휴를 맞아 나들이객과 대규모 공연 관람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행사장은 이른 아침부터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는 추석 연휴 당일인 지난달 25일 기록한 6만7천여명의 2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날 저녁 열린무대에서 진행된 프라임콘서트는 4천여석의 입장 대기표가 조기 마감됐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프라임콘서트에서 관람객들이 열린무대 객석을 가득 메운 채 응원봉을 흔들며 공연을 즐기고 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제공〉

가수 장민호의 사회로 14팀의 가수가 4시간 동안 무대를 꾸미며 관람객들의 체류 시간을 아간까

지 연장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조직위원회는 객석에 입장하지 못한 관람객

을 위해 20m 규모의 주제섬 300도 미디어파사드에 공연 실황을 동시 중계했다. 번호표를 받

지 못한 방문객들이 주제섬 광장 등 야외에 자리를 잡고 관람하며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했다.

흥행 열기를 잇는 릴레이 대형 공연도 이어진다. 지난 5일에는 뮤지컬 스타 최정원의 갈라 무대가, 오는 10일에는 방송인 박경림과 가수 아이비가 재능기부 형태로 열린무대에 오른다.

박람회장은 이날 하루 전편 휴장한 뒤 7일부터 후반기 새단장 체제를 선보인다. 국제교류섬 내 해외 지방정부관을 미국 하와이, 탄자니아 잔지바르 등 17개 국가·지방정부 테마로 전면 교체해 세계 각국의 섬 문화를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야간 관람에 대비해 난방기를 교체하고 섬게이트와 잔디광장 등의 경관조명을 대폭 보강한다. 앞서 주요 전시관에 해설사를 추가 배치하고 버스킹 공연을 확대하는 등 관람 편의성과 콘텐츠 질을 동시에 끌어올렸다.

김종기 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 사무총장은 “하루 13만2천여명의 방문은 여수세계섬박람회가 흥행의 획기적 전환점을 맞았다는 의미 있는 지표”라며 “마지막 날까지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지도록 후반기 프로그램을 알차게 보완해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곡성군, 노인 중심 통합돌봄 장애인까지 확대

65세 미만 지체·뇌병변 장애인 포함
읍·면사무소 신청 복지 원스톱 연계
郡 “정든 집에서 주체적 일상 누리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이 기존 노인 중심으로 운영해 온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10월부터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지체·뇌병변)까지 확대·시행한다.

6일 곡성군에 따르면 사업 대상 확대는 지난 3월 노인 대상 통합돌봄 서비스 도입에 이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춘 선제 조치다.

돌봄 인프라 부족으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거나 시설에 입소해야 했던 취약계층이 정든 집에서 건강한 일상을 이어가도록 돕는 데 목적을 뒀다.

그동안 돌봄이 시급한 취약 가구는 의료, 요양, 복지 등 필요한 혜택에 따라 군청과 보건소 등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통합지원 체계 확대를 통해 대상자가 가족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한 번만 접수하면 모든 절차가 해결된다.

신청 접수 후 군 전담팀과 읍·면 담당자,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열고 개인별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이에 따라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거주 여건에

꼭 맞는 보건의료 서비스는 물론, 가사·이동 지원, 주거 환경 개선 등 다각적인 돌봄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연계된다.

지원 대상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일상 생활 유지가 어려운 노인 및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중 복합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다. 신청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수시로 접수한다.

곡성군 관계자는 “의료와 돌봄이 함께 필요한 취약계층이 자신이 살아온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라며 “주민들이 어떻게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책임지는 맞춤형 통합돌봄 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박종원 담양군수 ‘군민과의 대화’ 마무리

담양읍 등 12개 읍·면 방문 소통
재해 예방 등 핵심현안 집중 논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은 6일 “박종원 군수가 최근 12개 읍·면을 차례로 순회하며 지역 현안을 살피는 민선 9기 첫 ‘찾아가는 군민과의 대화’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사진〉

박 군수는 지난달 9일부터 29일까지 담양읍을 시작으로 현장을 돌며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핵심 안건으로는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 배수로·마을 안길 정비, 배수펌프장 설치 등 수해 복구와 재해 예방 대책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농업 기반시설 정비와 도로 교통 개선 요구도 줄을 이었다.

특히 기존 경로당 방문 위주에서 벗어나 수해 반복 지역과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장, 파크골프장 등 주요 현안 사업장을 박 군수가 찾아 밀



착 점검을 진행했다.

군은 현장에서 접수된 총 313건의 건의 사항 중 신속 처리가 가능한 사안은 우선 추진하고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안은 중장기 과제로 분류해 진행 과정을 주민들에게 지속 안내하며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종원 담양군수는 “12개 읍·면을 찾아 수해 복구 등 재해 예방과 생활 불편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했다”며 “당장 해결이 어려운 사안도 진행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며 군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순천시, 임산부의 날 기념 축하 키트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는 6일 “임산부의 날을 기념해 시에 등록된 임산부를 대상으로 오는 10일까지 지역 내 출산 축하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순천시 고향사랑기부제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저출산 시대에 임신과 출산을 축하하는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지역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참여 희망 대상자는 네이버폼 웹사이트나 시가 배포한 홍보용 카드뉴스의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전용 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시는 기한 내 접수된 지원자들을 취합한 뒤 추첨을 거쳐 총 500명을 선정한다. 당첨자에게는 오는 14일부터 실용적인 물품으로 구성된 임신·출산 축하 키트가 택배를 통해 순차 배송될 예정이다.

이벤트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순천시 보육아동과 인구출산정책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주성학 기자

구례군, 지역 역사·문화 특강 개최

내일 근현대 생활 유물 가치 조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은 6일 “최근 통합어울림센터에서 주민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재생센터가 운영하는 ‘구만사’ (구례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 지역 역사·문화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지역 역사와 생활문화를 되짚어보고 숨겨진 문화자원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강의는 지역 향토사학자인 정인호 봉남리 이장이 강사로 나서 총 2회차로 기획됐다.

이달 1일 첫 강의에서는 ‘구례의 소리와 삶’을 주제로 농악, 마을곡, 상여소리 등 구전 문화와



풍물 악기를 통해 과거 주민들의 생활상과 공동체 문화를 조명했다. 특히 지역 소리가 단순한 옛 이야기를 넘어 중요한 역사적 기록이자 문화 자원이라는 점을 공유했다.

8일 이어지는 두 번째 강의는 ‘손때 묻은 역사·생활 유물과 국궁, 그리고 공간 재생’을 주제로 열린다. 각종 근현대 생활용품품을 통해 과거

생활상을 엿보고 수집된 생활 유물을 보존·기록하는 ‘그때그날기록관’의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희정 구례군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주민들이 지역 역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구례만의 소중한 문화 자원을 함께 발굴·기록하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례=김세중 기자



장흥군, 전통 발효차 ‘청태전’ 홍보 박차

찾자리 행사 100여명 참석 깊은향 음미

전통 선비차 다례 등 6대 다류 시연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은 6일 “최근 국가중요농업유산인 전통 발효차 ‘청태전(靑苔錢)’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차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청태전보존연구회 주최로 탐진강변에 마련된 농업유산 청태전 찾자리 행사에는 차인(茶人)과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일상에 벗어난 맑은 자연 속에서 청태전의 깊은 향을 음미했다. 〈사진〉

연구회원들은 전통 선비차 다례 시범과 6대

다류 시연을 선보였다. 참석자들은 정성껏 차를 내는 과정과 전통 예법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살피고 차를 매개로 소통하며 전통 차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청태전은 맑은 자연환경과 선조들의 지혜가 오랜 세월 빛어낸 장흥 고유의 전통 발효차다. 역사성과 문화적 비중을 높이 평가받아 2018년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2호로 공식 지정된 바 있다.

사순군 장흥군수는 “귀중한 전통문화 유산인 청태전을 장흥을 대표하는 핵심 문화자산으로 육성하겠다”며 “청태전의 대중화와 명품화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장흥=노형록 기자



화순군이 꿀벌 자원 육성 품종 증식·보급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농장 관계자들이 비가림 양봉 하우스에서 스마트 벌통을 점검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화순군, 꿀벌 자원 육성 품종 시범사업 추진

양봉농가 10곳에 장비·‘젤리킹’ 보급
스마트 벌통·비가림 하우스 등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은 6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양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기술 우수 양봉농가 10개소를 대상으로 꿀벌 자원 육성 품종 증식·보급 시범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지난 3월 대상 농가를 선정해 저온 저장고, 비가림 양봉 하우스, 스마트 벌통, 여왕벌 양성용 인큐베이터 등 증식에 필요한 핵심 장비를 집중 지원했다.

특히 스마트 벌통은 통신장비와 온·습도·

무게 센서 등을 갖춰 내부 환경을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이를 통해 농가는 이상 징후에 즉각 대응하며 효율적인 사양 관리가 가능해진다.

우수 품종으로 도입된 ‘젤리킹’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서양종 꿀벌이다. 일반 벌 대비 생리활성 물질인 10-HDA 함량이 31.3% 높고 수밀력과 유충방 청소능력도 각각 10%, 19% 우수해 실질적인 소득 증대 효과가 크다.

최은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양봉농가의 기술 수준과 생산성을 높이는 토대가 되길 바란다”며 “현장 맞춤형 신기술 시범사업을 지속 추진해 지역 양봉산업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